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며

뒤늦은 인사를 드리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월 16일에 한국을 나갔다가 4월 27일에 탄자니아로 돌아 왔습니다.

3월 29일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대학총장 목사님과 친지 분들과 장로님, 권사님, 기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총장 목사님의 배려 하심 속에 아무 부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말라리아에 걸릴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 하기만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 하는 것을 보고 감사 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의 헌금으로 라반 목사와 엘리샤 목사의 목사까운을 사와서 선물해 주었더니 무척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감사 했습니다.

4월 11일에는 주광이와 은선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광이와 은선양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선교사인 저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방도 얻고 결혼준비도 다해 두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사돈댁의 소리 없는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모두 선교사인 저희를 배려해 주신 그 사랑덕분에 저희는 그저 편안히 참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금 느낍니다.

그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가족, 친척들의 행사에 한번도 참석해 보지 못한 저희 자녀의 결혼식에 모두 시간을 내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올 때는 두려움과 기대와 어머니 같은 절실한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일이지만 저희가 너무나 부족해서 농업, 산림 산업대학을 준비하고 세워가야 할 일들을 하자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일은 재정을 떠나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함께 일을 해 나갈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돌아오니 농장에는 심어 놓고 갔던 토마토가 수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 올 무렵부터 시작된 우기로 인해 날씨도 서늘했습니다.
옥수수와 수수 참깨도 푸르름을 자랑하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큰 비는 없습니다. 잔잔하게 땅으로 스며드는 비만 내려서 작물에는 좋지만 물탱크와 저수지에는 그리 물이 많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우기가 끝나가고 있어서 건기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시디피센터 에서도 큰 변화없이 스태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고시가 있었는데 우리 시디피 어린이들이 상위권을 모두 차지 했다고 합니다. 방과후 학교공부를 꾸준히 해온 덕분인 것 같아서 수고해 준 단기 선교사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일을 하며 생활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스태프들의 자녀들은 저희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돈에 매이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나 둘 식구들이 늘어 나더니 이제 8가정에 30명 가량의 어른들과 15명 정도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는 마르코 형제의 부인이 해산날이 되어 아기를 낳았는데 2kg밖에 안 되어 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가 어제 죽었습니다.
엄마가 해산하기 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잘 못 먹고 한 것이 아기가 잘 자라질 못한 것 같습니다. 마르코 형제와 그 부인은 모슬렘이었다가 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심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에는 주광이와 은선이가 준 결혼 감사 헌금으로 비리마 비타투 교회에서 감사 예배와 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연극도 준비해서 보여 주었고, 필라오와 고기 스프, 셀러드등과 잔치에서 뺄수 없는 음료수도 함께 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 따로 없는 이곳에서 시디피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도 초청해서 가정의 의미도 살리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6월 5일에는 초등학교가 일제히 방학을 합니다.
저희 시디피에서는 6월 6일에 시디피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그동안의 공부하고 활동한 것들을 학부모님들과 이웃 분들께 보여 드려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격려 하고자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식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적어 봅니다.

1.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룰수 있기를.
2. 시디피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기를.
3. 농업, 산림 산업대학을 준비해 가는길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4. 함께 할 동역자들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5. 저희와 주영, 주광, 주성이가 이 땅을 주님께 올려 드릴 온전한 제물로 드리지
기를.
6.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다고 환율이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선거가
치뤄질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주님의 위로 하심과 은혜와 돌보심이 매순간 순간 동역자님의 삶속에서 함께 하
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 드리며

선교사 윤 봉석, 서 순희(주영, 주광, 은선, 주성)드립니다.

		
<p>안수식때</p>	<p>신랑, 신부</p>	<p>결혼식때</p>
		
<p>가정의 달에</p>	<p>참깨밭</p>	<p>한국에서의 즐거운 주성이</p>